데스크시각

박 진 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미술관은 어디일까? 놀라지 마시라. 국립현대미술관도, 삼성미술관 리움도 아닌 서울시립미술관이다. 미술전문지 월간 '아트프라이스'가 지난해 미술관과 화랑, 아트페어 등에서 작가와 관람객 6천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울시립미술관이 '가장 가고 싶은 미술관'으로 뽑혔다.

서울시립미술관이 '넘버 1'으로 선정된 데에는 무엇보다 굵직한 블록버스터전들이 한몫했다. 무려 61만5천 명을 동원한 '행복을 그리는 화가-르느와르전'을 비롯해 '색채의 마술사-샤갈전', '르네 마그리트전' 등 화제의 전시회를 잇달아 기획해 관람객들을 불러 모았다.

미술관문턱 낮춘 '찾아가는...'

하지만, 블록버스터전이 전부는 아니다.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일등공신은 바로 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미술관'이다. 지난 2007년 첫선을 보인 '찾아가는 미술관' 강좌는 단숨에 미술관과 관람객을 소통시키는 '만남의 장'이 됐다.

'찾아가는 미술관'은 2007년 1월 취임한 신임 유희영 관장의 '히든카드'였다. 평소 화가이자 미대교수로 미술관을 자주 드나들었던 유 관장은 시민들의 일상과 동떨어진 서울시립미술관이 안쓰러웠다.

광주는 지금 '열공'중

대형전시가 열리는 기간에만 관람객들로 북적일 뿐 평상시에는 쓸쓸한 전시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즐기는 미술관'을 표방한 유 관장은 취임하자마자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색 행보를 펼쳤다. 회사일 등으로 바쁜 시민들이 미술관에 오지 못한다면 미술관이 이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었다. 30~4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학예사들이 미술관 장비를 들고 사무실을 방문했다. 미술관 학예사와 평론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한눈에 보는 서양미술사', '한국미술명작 산책', '세계의 미술관', '알고 보면 쉬운 현대미술' 등을 강의, 미술에 대한 거리감을 좁혔다.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56회 강좌에 1만 여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에 '눈이 뜨인' 시민들은 시립미술관의 단골고객이 됐다.

대구문예회관은 한 달에 한번 아주 특별한 음악회를 연다.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모닝콘서트이다. 대구문예회관이 모닝콘서트를 추켜 든 것은 저녁 시간을 내기 어려운 주부나 자영업자들에게 클래식 감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 때문일까. 2008년 5월 첫선을 보인 이래 매회 100~200명의 열혈팬이 생겨날 정도다.

하지만 모닝콘서트가 대박을 낸 데에는 진행자인 박명기 관장의 공이 크다. '박 관장의 음악이야기'라는 타이틀이 붙은 콘서트는 오페라면 오페라, 교향곡이면 교향곡 등 해박한 설명으로 클래식에 대한 관객들의 '울렁증'을 날려버렸다. 기업과 관공서 등에서 박 관장을 모시려는 러브콜이 줄을 잇는 등 대구의 문화지형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도 서울시립미술관과 대구문예회관의 간판 프로그램 부럽지 않은 명품강좌가 화제다. 광주일보와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 2월부터 매월 한차례 운영하고 있는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가 바로 그것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와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설한 강좌는 매번 수백여 명이 찾을 만큼 반응이 뜨겁다. 미술 전공생뿐 아니라 주부, 70대 어르신까지 수강생들의 면면 또한 다양하다. 이는 문화수도에 살면서도 제대로 된 현대미술강좌를 접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준다.

문화 안목 높이는 교육을

사실 그동안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끌어올리는 일에는 무관심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을 비롯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시립미술관, 광주문예회관, 그리고 최근에 문을 연 빛고을 시민문화관과 영상복합문화관 등 문화기관들이 많지만 지역민들의 일상과 밀착되지 못했다. 시민들이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찾지 않는다고 불평만 늘어놓을 뿐 정작 이들의 문화 마인드를 길러주는 '교육'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문화는 경험한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즐긴다고 한다.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경험의 장'(場)을 늘려야 한다. 광주가 문화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이 병 우

첫 번째 이야기. 잘 난 마누라를 둔 한 남편이 있었다. 아내가 자신보다 학교 성적이 좋았고 현재 월급도 더 높고 주량도 더 세다. 뛰어보나 헤엄쳐 보나 아내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 이대로는 영 못난 남자가 될 것 같았다. 고민 끝에 남편은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도 좋으니 단 하나라도 그녀보다 뛰어난 자기의 장기를 찾아내기로 했다.

사흘 밤낮으로 끙끙거리며 찾아낸 것은 얼마나 높게 오줌을 쌀 수 있느냐 하는 경기였다. 아내는 순순히 동의했다. 당장에 정원에 나가서 담 옆에 선 다음 스커트를 올리고 한쪽 발을 올린 다음 기세 좋게 방뇨했다. 벽에 생긴 얼룩의 최고점을 재보니 1m 82cm. 남편도 당장에 남대문을 열어 거시기를 끄집어내어 위를 향해 방뇨를 막 시작하려는데, 아내는 분개한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 치사하잖아. 손을 쓰는 건 반칙이야"

두 번째 이야기.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한 발짝만 앞으로 오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옆으로 흘리는 것은 당신의 약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있는 경구들이다. 남자 화장실 변기 주변에 떨어지는 오줌 파편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한 방편이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오줌누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야 입식 소변기여서 한 발짝만 앞으로 가면 해결되겠지만 문제는 가정에서 이다.

입식 소변기에서도 옆으로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좌변기에서야 오죽하겠는가. 더구나 온 식구가 좌변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족의 위생이 직결되어 있다.

좌변기에 소변을 볼 경우 문제점은 소변 튀김 현상이 나타나 좌변기 주변이 오염되고 악취가 나 비위생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의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가정의 좌변기에 서서 오줌을 눌 때 소변이 어느 정도 튀는지를 측정한 결과, 바닥은 변기의 바로 앞부터 반경 40cm, 벽은 바닥에서부터 30cm까지 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실험에서는 남자가 일곱 번 오줌을 누면(하루 평균 소변량에 해당) 약 2300방울이 변기 바깥으로 튀었고 직경 2㎖ 이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 형태의 것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TV를 통해 '앉아서 소변보기' 캠페인을 일찍부터 전개한 적이 있었다.

앉아서 오줌 누기

서서 소변보는 것이 과연 남자의 특권이고 대단한 위세일까? 옛날에는 대단한 위세였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특히 그랬다. 남녀가 싸울 때 흔히 나오는 육두문자 중의 하나가 "앉아서 오줌 누는 여자가 감히 서서 오줌 누는 남자한테 덤비느냐?"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 여성장관이 임명될 때, 국장급 인사 한 명이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 밑에서는 일할 수 없다"며 사표를 낸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가당치도 않은 얘기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제 많이 달라졌다. 얼마 전에 인기 탤런트가 TV 에 나와서 자기는 집에서 앉아서 오줌을 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서 세간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사실 앉아서 소변보는 남성이 의외 많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항상 서서 소변을 보는 남성은 50.5%로 가장 많았으나 가끔 혹은 거의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성도 47.2%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대단한 수치이다. 오줌 누는 방식에 의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면 어찌 쭈그려 앉는 수고를 마다할 것인가.

〈보해양조 이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안 기 석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범죄는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을 밝히는 것보다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CCTV이다. 이는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통제의 공통된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 많은 지자체에서 CCTV 시스템 강화와 관제센터 구축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서민 안전 지켜줄 통합관제센터

2009년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한 안양의 경우, 전년 대비 범죄율이 5.3% 감소하고, 범인 검거율이 17% 증가하는 등 관제센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 은평·성동구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활용하여 U-안전·교통·방재·도시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는 U-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CCTV와 지능형 교통체계·버스정보 등의 다양한 교통정보, 산불·하천·도로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U-Safe 시티'라는 신조어가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기도 안양시는 'U-Safe 시티' 실현을 위해 방범·교통 CCTV와 최첨단 영상분석기를 통합·연계한 첨단 지능형 방범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시는 'U-Safe 시티' 구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방범용 CCTV를 220여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우범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각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개별 모니터링하고 있어 지역별 상호 연계 활용 곤란,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처 미비, 예산 낭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일환으로 방범·행정 CCTV 통합관제를 토대로 방범, 교통, 방재, 시설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제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의 여러 부서, 자치구, 경찰에서 개별 관리되고 있는 위에서 나열한 각종 정보에 대한 통합관제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우선, 투입규모가 커지면서 능률이 증가하는 경제효과가 가능하다. 즉, 사무실과 장비실 공간을 절약하고 시스템과 상황판 등의 장비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더 큰 사회적 효과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시생활의 편익 증대, 체계적인 도시 관리 등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구축 검토 중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시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U-Safe 시티' 건설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는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창출되고, 나아가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자치행정과장〉

입양 성공사례 공유해 사회적 공감대 키웠으면

자녀를 입양하는 부모를 일컬어 가슴으로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고 한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당당히 밝히는 게 그 비결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너는 입양한 아이야, 지금 우리는 양부모지만 너를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단다"라며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성심껏 대화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다고 한다.

그러니 입양한 사람들이 성공 케이스를 찾아 입양 부모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이런 모델 케이스를 공유하고 교육 홍보 자료로 쓰면 어떨까 한다. 즉 우리나라의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입양가정의 양부모와 입양 아이들에게 공유하고 알게 한다면 그 가정의 행복과 입양의 효과는 훨씬 더 클 것 같다.

이제는 입양 비밀주의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으므로 입양 성공사례 발굴, 그리고 그걸 공개하는 문화와 사회적 공감대를 키워보자.

▲유병화·광주시 북구 일곡동

사설

정신병원 영리에 눈멀어 인권 외면하다니

정신병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 입원시키는가 하면 중증, 경증을 가리지 않고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입원을 권장하는 등 일부 정신병원이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권익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접수된 광주와 전남·북지역의 정신병원 등 다수인보호시설의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은 22건에 이른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치료기관에 장기간 강제입원시키거나 입원 뒤에도 면회금지, 전화·편지 제한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무연고자를 보호자 의무가 없는 사람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까지 나왔다. 특히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법원은 멀쩡한 사람을 계속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경우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은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특히 위계에 말려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감금상태에서 파멸되고 만다는 점에 그 폐해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정신병원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현대인 대부분이 크고 작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잠재적 정신질환자라는 점에서 정신병원은 가장 쉽게 이용해야할 의료기관이다. 다만, 중환자의 경우 치료의 특성상 가능한 조용한 곳에 병실을 갖추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영리에 눈이 멀어 이를 악용해 인권의 사각지대처럼 운영하는 병원과 유사시설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당국도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금지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사이버 통금' 철저히 지켜져야

정부가 청소년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9월부터는 특정 게임에 한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청소년들이 접속할 수 없는 청소년 '사이버 통금'제가 도입된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를 시작으로 대상 게임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또 오래하면 아이템을 얻는 속도가 느려지는 피로도 시스템 적용 게임도 현재 4개에서 연말까지 19개로 확대된다.

주민번호 도용을 막는 보완책도 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게임업계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털도 구축된다. 부모들은 이를 통해 게임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게임 중독 현상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장시간 게임에 몰입하다 돌연사하거나 폭력, 흉악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제력이 약한데다 과중한 학업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약 7%인 51만 명이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 청소년 사이버 통금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기 위해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을 게임 중독으로 부터 보호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다. 자녀가 부모들의 명의를 도용해 게임에 중독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자녀 게임이용 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친환경 미역

미역은 한방에서 해채, 감곽, 자채, 해대 등으로 불린다. '해채(미역)는 열을 내리고 오줌을 잘 나오게 한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다.

중국 당나라 유서(類書)의 초학기(初學期)에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뜯어 먹는 것을 본 고려인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게 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온다. '고려사'에도 미역밭을 벼슬아치에게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미역을 채취했음을 알 수 있다. 미역은 국제 교역품이기도 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미역을 중국 및 북방민족에 수출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미역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 출생과 동시에 미역과 인연을 맺는다. 산후선약(產後仙藥)이라 하여 산모가 먹는 미역의 여러 성분은 젖줄을 타고 갓 태어난 아기의 몸 안으로 들어가 살을 찌우고, 피가 돌게 한다. 생일상에도 미역국이 빠지지 않는다.

미역은 혈압을 낮추고, 체내 지방의 배출을 돕는다.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알긴산)이 공해물질을 흡착해 배출시키며, 이 점액질 성분은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막아준다. 특히 조혈작용을 도와주고 상처를 입은 몸의 회복을 빠르게 해준다. 미역은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의 몸매관리에도 그만이다.

우리나라 미역의 주생산지는 고흥·완도·장흥 등 전남지역으로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장흥군 '미역'이 지난해 '무산 김'에 이어 올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았다. 친환경 미역 생산을 위해 공유수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시설 어장과 항로와 중복된 어장을 재배치했다고 한다.

최근 중국산 미역의 수입이 늘고 있지만 장흥 미역이 종묘부터 생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국내는 물론 수출상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영양의 보고인 친환경 미역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어업인들의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고경석 사회2부장 ksg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